

경남도 협의회

돼지고기 및 두·내장 요리강습회 성황리에 개최

주부·영양사·각지역지도자 등 8백여명
경남도청 도민홀 가득 메워

취재 : 이 원 복 기자

대한양돈협회 경상남도협의회(회장 : 신태식)가 주관한 돼지고기 및 두·내장 요리강습회가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주부, 영양사, 각 지역 지도자 등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전 경남지역에서 돈육요리식당을 경영하며 돈육소비홍보에 기여한 최종선(농장불고기, 경남울산), 박경남(무학갈비, 마산), 이성호(이조갈비, 김해)씨에게 본회가 제작한 감사패를 최상백 부회장이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태식 경남도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KBS·TV가 방영한 “이상

구 건강법”이란 프로에 의해 양축가들이 피해를 크게 본 것이 사실이라 전제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이같은 프로로 국민건강을 오도한 것은 KBS측에 커다란 실수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열리는 이 행사에 주부, 영양사, 각 지역 지도자들은 돼지고기 및 두·내장의 우수성을 익혀 돈육소비홍보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일홍 경남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양돈협회의 돈육소비행사는 선진제국의 수입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매우 권장해 줄 행사라 전제하고, 돼지고기 및 축산물의 소비가 바로 농민의 생존권과 관련되므로 경남도민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습회는 이어 부산대 가정학과 서명자 교수의 “돼지고기와 두·내장의 우수성”강연과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의 안승춘 강사의 두·내장 요리시범(돼지밥통, 돼지 지라볶음, 돼지

고기카사노바, 돼지고기 피망잡채)을 가졌다.

강습회와 강연이 끝난 뒤 8백여명의 참석자가 시식회로 들어갔는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시식을 못한 참석자가 없이 음식을 골고루 배식하였다.

또한, 양돈협회가 준비한 돈육요리책자, 포스터, 팸프렛 등이 바닥이 났으며, 특히, 각 단체의 영양사들은 행사장 주위에 부착한 돈육소비홍보 포스터를 떼어가는 해프닝을 벌여 관계자들의 뒷마무리인 청소를 덜어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행사장에는 마산 MBC, KBS·TV 라디오에서 나와 열띤 취재경쟁도 벌였는데 신태식, 왕준런 회장은 마산 MBC라디오가 제작한 “오후의 로타리”(오후 3:15~3:25)프로의 생방송에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산 MBC·TV는 3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수회

방송을 했으며, 지난 4월 2일 아침 8시 40분의 “일요광장” 시간에는 10분여 동안 행사의 주요 장면을 방영하였다.

또한, 최일홍 경남도지사는 격려사를 끝낸 후 돼지고기, 두·내장 요리를 시식하면서 경남도협의회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한복을 입고 안내를 담당할 경상남도협의회 지부 아가씨들과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신태식 회장은 이번 행사를 적극 후원해 준 최일홍 도지사와 축정과 직원,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왕준런), 축협경남도지회(도지회장:배태규), 여성사료(주)(대표:박정희)에 감사드린다고 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이루고 나면 그만큼 즐거움은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다고 감회를 털어 놓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양돈협회 지부 단위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지부 활성화의 첫길을 내딛는 시적이 된 것 같다.

첫번째 지부자체의 행사로서 너무나도 성대한 업적을 남겼다. **■**